

Prehypertensives are at higher risk for electrocardiographic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nd more associated with other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han normotensives

경희의대 순환기 내과 안효석*, 손일석, 김수중, 황석재, 배장환, 강흥선, 조정휘, 김권삼, 송정상, 배중화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JNC 7) has introduced a new classification that includes the term "prehypertension" for those with blood pressure(BP) ranging from 120 to 139 mm Hg systolic(SBP) and/or 80 to 89 mm Hg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to identify those individuals in whom early intervention by adoption of healthy lifestyles could reduce BP, decrease the rate of progression of BP to hypertensive levels with age, or prevent hypertension entirely. We assessed whether prehypertensives(PH) have more prevalent electrocardiographic left ventricular hypertrophy(ECG LVH) and are more associated with other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han normotensives(NT). Methods: a total of 166 with normal BP (SBP<120 mmHg and DBP<80mmHg) and PH (n=136) without history of hypertension, diabetes, or any other known cardiovascular diseases are undertaken blood sampling for lipid profile and electrocardiogram. Results: compared with NT group, PH are more likely to be older, heavier, and have greater abdominal circumference, and hav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erum total cholesterol, uric acid, and triglyceride. PH have significantly higher Sokolow-Lyon and Cornell voltage for ECG LVH and with higher ECG LVH prevalence(3.6 vs 10.3%, 0.6% vs 4.4% respectively) than NT group. In conclusion, PH are associated with higher prevalence of ECG LVH and have mor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han NT. Thus we should pay earlier attention to diagnose and screen PH group as mentioned in JNC 7 reports.

관상동맥 중재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간호부

최명자, 정명호, 배소현, 김동아, 임정옥, 최영자, 박숙령, 이숙자, 김원, 김주한, 안영근,
조정관, 안병희, 박종춘, 김상형, 강정채

배경: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후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한국 실정에 알맞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는 실정으로서,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 개선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후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던 환자 663예 (남: 407예, 58.6±9.8세)를 대상으로 환자의 자각 증상의 호전에 대한 만족도 (60점), 의료진 및 치료에 대한 만족도 (20점), 삶에 질에 대한 만족도 (20점)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5 등급으로 세분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평지나 실내에서 걷는 일, 언덕이나, 한 층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일, 정원을 가꾸고 집안 청소나 식료품 등을 옮기는 일, 빠른 걸음으로 걷는 일, 빨리 달리기, 가구나 어린이를 드는 일 등을 각각 10점씩 계산하였고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4점 이상으로 하였으며, 4 점 이상인 예는 각각 559예(84.3%), 422예(63.7%), 499예(75.3%), 386예(58.2%), 256예(38.6%), 317예(47.8%) 등이었고 빨리 달리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담당의사의 설명 및 치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각각 10 점씩 하였으며, 만족한 예는 8점 이상으로서 각각 530예(79.9%), 516예(77.8%)이었다. 인생에 대한 즐거움 과 사망에 대한 걱정 등을 각각 10점씩 하였고 8점 이상을 거의 제한받지 않는 예로 하였고 각각 322예 (48.6%), 286예(43.1%) 이었고 사망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점수는 64.2점 으로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점수이었다. **결론:** 관상동맥 중재술 후 빨리 달리기 및 사망에 대한 걱정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으며,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